양양소식

2023. 2

Vol. 333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군청 사이클팀

08 함께 가는 길
양양소방서

12 양양군청 IN & 人
건설과

눈꽃

한상남

가지에 얹혀
나뭇잎에 안겨서
은백색 고백 담은
사랑이어라

까만 어둠 뚫고
차가운 바람에 실려 온
해맑은 미소 머금은
첫사랑이어라

한나절 따사론 햇살에
한줄 물로 변하는
애달픈 풋사랑이어라

약력

– 1991년 마로니에 백일장 아동문학부문장원, 아동문예로 등단
– 2016년 대경문학으로 시 등단
· 동화) 크리스마스 냄새, 웃음 찾은 개미마을
· 시집) 나는 괜찮다, 소리를 색칠하다 등 40여권의 저서 있음
– 한국문인협회 회원, 사)기독교문인협회 부이사장, 양양문인협회 회원

양양소식

Vol. 333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4 **기획특집_** 양양군청 사이클팀

8 **같이의 가치, 함께 가는 길_** 양양소방서

12 **양양군청 IN & 人_** 건설과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눈 온 풍경(제설작업)

의기양양

16 **의정소식_** 2023년 의정방향 핵심키워드

18 **향토사 이야기_** 사림사(선림원지)와 홍각선사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건강 알리미_**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안내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_**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갱신) 안내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33호

| 발행일 2023년 2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사이클 명문 고장을 이끈다!
양양군청 사이클팀

양양을 대표하는 스포츠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사이클을 꼽을 것이다.
양양 읍내엔 항상 일 년에 몇 차례씩 사이클 우승 소식을 알리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곤 한다. 그만큼 양양은 자타공인 사이클의 고장이다. 중고 사이클팀부터 양양군청 실업팀까지 두루 갖춘 양양은 특별한 사이클 사랑이 느껴진다. 팀마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양양군청팀은 특히 최근 4~5년 중 지난해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는 양양군청팀을 만나봤다.

33년 역사와 전통의 양양군청 사이클팀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이호식 감독과 메카닉(정비) 역할을 담당하는 전영재, 지난해 상무에서 제대하고 팀에 복귀한 김청수 선수를 주축으로 한 8명의 선수를 포함해 총 10명이 팀을 꾸리고 있다. 군청팀을 만난 지난 1월, 선수들은 2월에 있을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이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호식 감독은 지난 2017년 코치진으로 합류해 지난해부터 박상택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아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지난 1991년 여자팀으로 창단된 뒤 1996년 남자 실업팀으로 전환 돼 33년째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중이다.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난해엔 전국대회에서 종합 우승 2회, 준우승 1회 등 3번의 우승 소식을 전했다. 최근 가장 좋은 성적이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이호식 감독은 인천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양양 출신인 이호식 감독은 학창 시절 사이클 선수를 거쳐 양양 중학교와 군청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사이클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야말로 양양지역 사이클의 산 역사로 군청 사이클팀뿐만 아니라 양양 사이클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호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주고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수들의 기량도 빛을 발하고 있다.

양양은 사이클 대회 최적지

양양군청팀이 거둔 성과는 훌륭한 지도자와 실력 있는 선수 외에도 팀을 뒷받침해주는 행정 부서의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이 있어 가능했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숙소에 찾아가 선수들의 고충 상담을 귀담아듣는 등 세심한 배려가 큰 힘이 됐다. 그 결과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2022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서 우수 운영팀으로 선정됐다. 2021년에 이어 연속 2년 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한 성적과 체계화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양이 사이클의 고장으로 우뚝 선 것은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양양 사이클경기장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에 문을 연 사이클 전용경기장인 벨로드롬은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경기장과 함께 국내 최고 시설로 꼽힌다. 양양이 사이클 명문 고장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양양군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벨로드롬(트랙 규격 333.33m) 경기장과 BMX 경기장, MTB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룡령과 조침령 등 자전거 동호인 사이에서 최고 난이도로 꼽히고 있는 도로 코스도 갖추고 있어 사이클 대회 최적지로 불린다.

이처럼 사이클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타지역 사이클팀도 전지훈련장으로 양양을 많이 찾고 있다. 이는 지역 경기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양양에선 전국규모의 사이클대회가 3차례 열린다. 8.15 경축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및 전국사이클대회,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이클경기가 양양에서 펼쳐진다.

남자일반부 종합우승 및 최우수 감독상 수상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양양군 홍보대사

종종 양양 관내 도로에서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들을 만날 때가 있다. 운전 중 선수들 옆을 지나칠 때면 조심스럽다. 양양이 사이클의 고장이다 보니 대회가 열릴 때면 도로를 사이클에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 그 불편함을 참고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사이클 선수들에겐 큰 힘이 된다.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지역민들을 위해 선수들은 성적으로 보답하지만, 때로 바쁜 일정을 쪼개 지역축제에 참여해 지역민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양양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 양양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팀은 올해 처음 출전하는 2023창녕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1월 중순부터 창녕에서 동계전지훈련 중이다. 지난해 팀 우승을 이끈 주역 선수들이 입대와 팀 이적 후 4명의 신규 입단 선수 교체 등 새로운 라인업 구성으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새해 첫 경기를 앞둔 이호식 감독은 힘찬 포부를 다졌다.

"안전사고 없이 완주를 목표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8명 선수가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종합우승을 거둬 양양군민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60년 양양의 사이클 역사를 새로 써나갈 각오로 올해도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갈 것이다.

〈**글 · 사진** : 편집부〉

같이의 가치, 함께 가는 길

양양소방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한 지킴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대원들의 노력
군민과 함께 안전한 양양 만들기 실현

신속동료구조팀(RIT)훈련

위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현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한편이 든든하다.

속초소방서 관할로 운영되던 양양 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해 지난 2016년에 소방서로 새롭게 정식 출범한 '양양소방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재난에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양양소방서 대원들이 흘린 구슬땀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오늘도 무사하다.

소방의날

2022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양양소방서는 365일 출동 대기 중입니다.

어떤 일에는 '감사' 이상의 표현이 필요하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으로 생명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마주할 때 그러하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의로움에는 고맙다 못해 송구한 마음마저 든다.

양양은 동해 바다와 설악산이라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 의한 소방수요가 많은 편이다. 여름철 구급활동 대부분이 관광객들로부터 접수된 사고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풍철에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산악 사고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겨울철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출동이 잦다. 특히 어르신들 빙판길 낙상사고와 독거 어르신의 안부 확인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22년은 긴박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려야 했던 해였다. 작년 8월에는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장 싱크홀 발생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안전 조치를 취했고, 11월에는 산불 감시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져 구조대와 진압대, 긴급 기동대 등 인력 140명이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다. 12월 27일에는 화일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느라 일주일 내내 고군분투해야 했다. 어디 그뿐이

겠는가? 화재 · 구급 · 구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하는 양양소방서는 1년 365일 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양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훈련도 실전처럼 열심히 임해왔다.

구조 · 구급 · 진압 등 역할별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과 재난유형별로 대응 활동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현장 활동에 기본이 되는 개인 체력관리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 · 참혹 현장 등과 같은 외상 사건, 폭언 · 폭행 등의 소방 활동 중 심리적 외상에 빈번하게 노출된 현장 대원들은 동료상담제도(팀장급 선배와의 부담 없는 대화를 통해 심리적 회복탄력성 형성)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한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 번의 기회라는 건 없기에, 양양소방서 대원들은 한 번의 출동을 위해 늘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양양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솝어린이집 한국119 청소년단 발대식

119 소방 동요 경연대회 (낙산유치원)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양양소방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봄에는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을, 여름에는 수난사고 예방 캠페인을, 가을에는 안전 산행 등을 위한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는 관내 4개소에서 캠페인을 추진했고, 요즘처럼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추진 기간(11월~2월)에는 매달 정기적인 화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고취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아동 ·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이다. 관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19 청소년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소방 안전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119 소방 동요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소방 동요를 통해 즐겁게 안전의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는 비대면 영상 제출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양양군 대표로 참가한 낙산유치원생 20명이 소방 동요 '조심하는 습관'을 불러 우수상을 받았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CPR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양양소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이라는 타이틀의 음원을 자체 제작하여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매일 송출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의용소방대는 양양소방서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양양 의용소방대는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는 봉사단체로, 크고 작은 화재 현장과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소방 활동을 펼쳐왔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양소방서는 지역민과 손발을 맞추어 안전하고 행복한 양양 만들기를 실현해가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양양소방서 전경

청각장애인 가구 방문 시각경보기 설치

양양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및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가정에 음향과 함께 빛을 내는 청각장애인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다. 또한, 노유자 시설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대피와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에 강원도 적극행정 민원처리 '최우수상', 도내 소방장비 매뉴얼 평가 1위, 강원도 소방안전강사강의 경연대회 우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양양소방서는 2023년에도 선진 소방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방 현장 활동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소방 활동 10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대형 산불 및 화재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역할교대 시범운영(월 1회 내·외근 간의 업무 역할교대)으로 업무 이해도 증가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퍼스트 케어 프로그램(명상, 웃음 치료, 누적 스트레스 측정, 긍정 심리 체험 등)을 운영해서 현장 활동 대원들의 스트레스 경감 및 PTSD 완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양양은 봄철 대형 산불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금하시고,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화목보일러 또는 연탄불이 타고 남은 재는 확실히 꺼진 상태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개인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100%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양양소방서에서 전하는 당부의 말」

〈**글 · 사진** : 양양소방서 제공〉

건설과

양양군의 생활 기반을 닦습니다

부서 : 건설과
규모 : 4팀 17명
업무 : 건설행정, 하천관리, 도로시설, 기반조성

도시에는 크고 작은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그리고 그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고,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 많은 건축물과 교량 같은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장마나 태풍으로 하천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움푹 파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는 당연히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집 밖을 나서면 언제나 마주하는 것들, 양양군의 생활 기반을 책임지는 건설과를 소개한다.

양양군 사회기반시설 총괄 관리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집 앞의 마을 안길부터 자동차를 타고 이용하는 크고 작은 모든 도로, 이를 연결하는 다리, 농사에 필요한 농로와 보,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태풍, 홍수 등의 물난리가 발생할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양양군청 건설과가 하는 일이다.

주요 업무로 건설행정팀은 전문건설업 인허가를 비롯해 국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팀은 남대천 지방하천과 여운포, 포매 등의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시설팀은 군도 유지보수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군도 4호선 도로개설과 군도 5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반조성팀은 마을 안길, 농로, 농수로, 배수로 등 마을에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착공한 인구저수지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현안사업으로 양양시내에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국도44호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과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양양교에서 연창 보건지소 일원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상반기 마무리되면 시야가 확 트인 남대천을 기대할 수 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공사

인구저수지

주민들의 협의와 신뢰가 가장 중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에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개인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급상승한 토지가격으로 감정가와 실거래 차액이 커지면서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 마을 안길이나 농로, 배(농)수로 설치를 하면서 개인 토지 일부를 사용 동의받아 설치하였고, 최근 토지 소유주 변경으로 인해 경계측량을 하면서 개인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인 군도 4호선(송현~가평) 및 5호선(상운~여운포)의 경우도 개인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주가 지역 주민인 경우, 공익을 위해 행정을 신뢰하고 토지수용에 선뜻 협의해 주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생활개선과 교통편의를 위해 준공 일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도 4호선

화상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행정

양양군은 2002년 태풍 '루사'부터 시작해 집중호우, 산불까지 재해가 닥칠 때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많은 기반시설이 무너진 경험이 있다. 하지만 노후한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일은 오히려 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경험삼아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지나간 이후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소하천 구석구석의 작은 피해를 일일이 찾아내고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에 건설과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집을 나서면 만나는 모든 길과 도로, 하천과 농업 관련 시설 관리, 자전거도로, 교량점검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국 · 공유재산과 지역 건설산업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양양군의 발전을 위한 생활 기반을 닦는 곳. 땅 위에 주민 누구나 함께 쓰는 모든 것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 건설과는 오늘도 현장 근무 중이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눈 온 풍경(제설작업)

1960~70년대 추정

1981년

2023년

2023년

제9대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2023년 의정방향 핵심키워드

■ 오세만의장 – 오색케이블카 설치 & 지역 경제 활성화

양양군의 최우선 과제는 오색케이블카를 조기 착공하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이에 따른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와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고, 기후변화와 초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1차산업을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 · 수 ·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양양국제서핑대회를 통해 양양이 서핑의 메카,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선남부의장 – 청년 & 노인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군민을 섬기는 초발심(初發心)의 한결같은 믿음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년 · 노인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민생안정을 이루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며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군민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 김의성의원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소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하여 주민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 박봉균의원 – 감시와 견제를 통한 의회 기능강화

올해 양양군 예산은 4,347억 원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민 2만 7천 명 각자의 몫이 들어있다 할 소중한 예산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은 엄격하고 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고, 양양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여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종석의원 – 특화된 교육 정책 & 농어촌 거주 비농어업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농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운영,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중 · 고등학교까지 연계 ·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농 ·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은 귀농, 귀어업을 위한 지원책에서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농어촌의 현실인 만큼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수의원 – 서핑특구 활성화 & 지역 현안 해결

명실상부 국내 서핑 메카인 우리군의 명성은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서핑 관련 사업이 활성화된 이면에 통행불편, 교통난 등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 이명숙의원 – 인구증가 시책 발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 관광도시로서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 · 개발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인구 5만이 거주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과 현장에서 직접 봉사하고 실천하는 생활 정치로 군민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참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림사(선림원지)와 홍각선사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자리한 사림사의 원명은 억성사(億聖寺)이고 이곳에서 홍각선사가 한국 선종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그 자취를 살피고자 한다.

■ 억성사에 세워진 홍각선사탑비

880년 10월 21일 승려 김이관이 입적하자 이듬해 신라 헌강왕은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그의 법명을 홍각선사(弘覺禪師:830~880)로 하였고 탑명을 선감지탑(禪鑑之塔)이라 정하여 탑비와 승탑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정강왕 원년(886)에 억성사에 세워졌다.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전체 문장을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법이란 것이 본래 진(眞)도 아니고 가(假)도 아님을 알아야 선종의 근본에 도달하게 된다.', '말을 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른 이가 홍각선사가 아니겠는가!', '홍각선사는 정신이 뛰어나게 맑고 시원하며 본성의 깨달음이 비범하여, 법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나루터이자 다리였다.'라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미천골에 위치한 억성사와 그 절에 주석하였던 홍각선사가 한국 선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억성사의 강원(講院), 선림원

경서와 사서에 능통한 홍각선사는 17세에 해인사(海印寺)로 출가하여 선지식을 찾았고 영암사(靈巖寺)에서 참선에 정진하였는데 그 모습과 풍채도 준엄하였다 한다. 억성사에 주석하던 염거화상이 입적하자 홍각선사는 원감대사(圓鑑大師, 787~868)를 찾아가 수학하고 870년경에 다시 억성사(億聖寺)로 돌아온다.

홍각선사는 억성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선종의 강원(講院)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적지 않은 타종단의 승려가 선종으로 이적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때 스님들이 먹을 쌀을 씻은 물이 미천골(米川谷)을 채웠다 하니 억성사의 위세를 짐작할 만하다.

1605년 을사포락 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림원지를 최근 발굴하였는데 남서 길이 29.2m, 북동 길이 25m, 너비 13m의 'ㄱ' 자형 대형 승방지와 여러 동의 부속 건물지와 강원 터가 확인되었다.

선림원지 발굴모습 (2015. 7 ~ 2016. 11)

■ 사림사와 선림원지

양양부사 이해조가 지은 『양양삼십영』의 한시와 『현산지』의 사찰조 및 『여지도서』 등 자료에 의하면 신라 사찰 억성사가 조선시대에는 사림사로 불리었다. 그런데 1964년 정영호박사가 사지를

최초로 조사한 후 석조물인 보물제444호 삼층석탑 등 4점을 1966년 9월 1일 문화재로 지정할 때 사지의 명칭을 '선림원지'로 기록하므로 사림사지가 선림원지로 불리게 되었다.

홍각선사탑비문 실물

■ 홍각선사탑비의 수난

헌강왕의 명령으로 병부랑중 김원(金蓮)이 비문을 지었고, 그 비문을 승려 운철(雲撤)이 왕희지체로 썼고, 비명은 차성현령 최경[崔瓊: 일부에서는 최형(崔㚟)으로 기록되어있다]이 전서체로 썼는데 이를 보덕사 승려 혜강(慧江)이 새겼다. 이 비문에 사용된 왕희지체는 '점획이 팔팔 뛰려는 것 같고 삼장(三藏)의 서문과 겨루어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나다.'한다.

『관암전서』, 『양양부읍지』 등에 의하면 조선 후기 양반들이 이 비문을 앞다투어 탁본하려 하였는데 이로 인해 민중들이 탁본 부역에 시달리게 되자 화재를 일으켜 비문의 몸돌이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다.

그 후 양양부사 안경운(安慶運,1745~1747)이 파편을 수습하여 양양부의 창고에 보관하던 것을 1913년 조선총독부의 금석문수집 통첩에 따라 이 비의 파편 일부가 1914년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2002년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또 1985년도 발굴조사 시 출토된 비석 조각 일부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홍각선사의 비문은 신라 말기 왕희지의 글씨가 보급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 2008년 홍각선사탑비를 복원하다

홍각선사탑비의 탁본 된 비문을 연구한 결과, 글자 수는 1,340자 정도로 밝혀졌는데,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가로 32행, 세로 48자의 비문을 너비 94.5㎝, 높이 173.5㎝, 두께 19㎝의 비 몸돌에 음각하여 사지(寺止)에 남아 있던 높이 73cm의 거북 받침돌에 세우고 5.23cm의 머릿돌을 덮어서 선림원지에 세우므로 보물 제446호 홍각선사탑비가 복원되었다.

홍각선사탑비 (보물제446호)

홍각선사비명 (弘覺禪師碑銘)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군, 작년 공모사업 14건 선정돼 국 · 도비 등 600억원 확보

양양군이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도전해 2022년 최종 14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600억 원의 국 · 도비 및 민간투자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2021년 최종 27개 사업, 487억 원 확보와 비교하여, 사업 수는 적지만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국 · 도비, 민간투자비, 군비를 포함하여 85,644백만 원이며, 특히, 2021년 미선정 되었던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양양 군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재추진하여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분야로는 농산어촌개발, 관광문화,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각 분야의 균형있는 사업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

양양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작년 2021년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군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적정관리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립 등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양군, 2022년 조달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양양군이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조달시책에 적극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조달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조달이용 우수기관은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 조달사업 이용 실적과 조달행정 업무 협조,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양양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 조달서비스 이용 실적이 전년실적(411억 원) 대비 130%로 증가한 538억 원의 사업실적을 보이는 등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67억원 규모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월 9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관광 활성화 위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

올해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또는 초 · 중 · 고등학교 수학여행 학교로서, 인원수와 숙박일수, 유료 관광지 방문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역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점과 관광지(유료관광지 1개 포함)를 각각 2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방법은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에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남대천 상징조형물 및 시설 안내판 설치

남대천의 PI(Place Identity) 상징조형물과 시설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양양군은 친수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 남대천의 역할을 나타내고 랜드마크화하여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남대천 상징조형물을 남대천 어화원 인근에 설치하였으며, 남대천의 대표 시설들을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남대천의 PI(Place Identity) 심볼마크와 시설별 픽토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김신지 지음
| 잠비
| 2023. 1월

P. 150~151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몸집을 부풀려 커지면, 나는 인숙 씨가 아니라 인숙 씨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속으로 그것들과 겨룬다. 밤새 무서운 기세로 덩굴손을 뻗는 오이, 뙤약볕 아래 매운맛을 응축 중인 고추, 참나무의 양분을 한껏 빨아들이는 표고버섯과 마침표처럼 딴딴하게 여물어가는 참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지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나도, 인숙 씨가 기른 것 중 가장 튼튼한 것은 나여야만 한다고. 이 삶을 아끼는 것으로 나는 그의 자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들판에 팔다리를 꼿꼿이 펼치고 선 작물이 된 기분이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듯이. 내 삶이 아직 자라고 있다.

■ 인숙 씨가 살면서 가장 아낀 것

P. 162~163
시간이 생기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싶어? 혼자가 된 밤이면 일기장 여백에 틈틈이 '진짜 가지고 싶은 시간'에 대해 적어보곤 했다. 괴로운 것을 피해 뒷걸음치는 인생 말고, 좋은 것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물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덜 쓴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용히 기뻐졌다.

■ 오늘 하루가 다 내 것이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 박진영 지음, 소복이 그림
| 우리학교
| 2023. 1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마음을 돌봐 주나요?
내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고민에 빠지는 나이 열 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좋고, 매일 연습했는데 대회에서 지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엄마 아빠가 야단치고, 친구들이 나만 빼놓고 놀 때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열 살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고학년을 향해 가는 중간 시기입니다. 그만큼 학업 활동도 많아지고 친구 관계도 복잡해져 혼란스러움을 겪는 나이지요.

아이들은 열 살쯤,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중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에 빠지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 자신을 미워하고 탓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법 말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고민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자녀에게 무심했다면 이 책,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로 따듯하고 든든한 위로를 건네 보세요.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몬스터 하우스2 인비져블 피닉스

다음 소희

어메이징 모리스

두다당쿵 후후섬의 비밀

살수

앤트맨과 와스프_퀀텀매니아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양양군
YANG YANG GUN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안내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에 머물러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활성화되어 신경절을 따라 발진을 일으키고 신경통이 발생**하며 대상포진이 오래 지속되면 실명, 폐렴, 청력문제,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로 면역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며, 대상포진 특성 상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주요 증상인 신경통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일정

대 상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973.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접종안내문 우편발송 예정)
기 간	**연 중**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1회)** (※ 기 접종자는 지원 불가)
접종장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5개소**
접종방법	**신분증 및 대상포진 접종 안내문**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지참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
문 의	양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670 - 2540 / 2940 / 2887**

대상포진 예방접종 의료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상명내과의원	양양읍 남문6길 4	672- 8712
성모의원	양양읍 양양로 62	673- 2800
양양정형외과의원	양양읍 양양로 9-1	672- 6723
연세의원	양양읍 양양로 38	672- 0092
중앙외과	양양읍 양양로 48	672- 0911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미래안전광고	1명	사무보조원	10:30~16:30 (주5일)	월130만원
KAC공항서비스(주)	2명	조류충동예방 기간제 (수렵면허소지자)	시간협의	월222만원이상
영광건축자재	1명	건설자재 영업원	07:00~16:00 (주6일)	연2,800만원 (협의)
㈜매홍엘앤에프	1명	회계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대양환경기술	1명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원	09:00~18:00 (주5일)	연2,800 ~3,000만원
광운통신(주)	1명	통신.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협의)
㈜남양인더스트리	1명	총무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05만원
㈜설악산그린푸드	2명	식품 가공 및 생산직 (기간제)	09:00~18:00 (주5일)	월201만원
티에스씨엠 (오션스테이 호텔)	6명	룸메이드,미화원	09:00~18:00 (주5일)	시급9,620원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오색그린야드)	1명	여탕관리원	교대근무	월224만원 ~235만원
	1명	서빙 및 캐셔업무	교대근무	
	1명	세탁원	09:00~18:00	
양양수산	2명	수산물 가공 생산직	08:00~17:00 (주5일)	월250만원이상 (협의)
	1명	품질관리사무원	08:00~17:00 (주5일)	월300만원이상 (협의)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1명	조리원	교대근무	월221만원
주식회사 은진 (양양 브리드호텔)	2명	룸메이드	08:30~17:30 (주5일)	월240만원
	2명	하우스맨	08:30~17:30 (주5일)	월250만원
	1명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수)	08:30~17:30 (주5일)	월350만원

정보꾸러미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 24.(금)**
□ **접 수 처 :**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033-670-2767) 및 읍 · 면사무소
□ **장학금 신청 대상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시행세칙 제3조)**
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한 자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폴리텍대학,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대학 (경찰대,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장학생 지원절차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시행세칙 제7조)**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자치행정과 또는 읍 · 면사무소 총무부서에 제출
※ 신청서류 : 읍 · 면사무소 총무부서 비치

※ 자세한 사항은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http://www.yysc.or.kr/main.php) 및 양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yangyang.go.kr/gw/portal)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9.(월) ~ 3. 31.(금)**
□ **신청장소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읍 · 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 ·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 신청불가(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지원대상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 가공 · 제조 · 유통 · 수출관련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 · 운영 자금 융자사업
□ **사업당 융자금액 : (개인) 1천만원 ~ 3억원, (단체) 5천만원 ~ 10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 10% 이상
–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부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서식 1부
※ 신청서류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33-670-2469)및 읍 · 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정보꾸러미

2023.1.12
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현장에서 바로 접종하세요!
1339 콜센터와 네이버·카카오를 통한
코로나19 접종 예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후 바로접종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하세요!
코로나19 바로접종 Q
코로나19 예방접종 Q
코로나19 접종기관 Q
코로나19 잔여백신 Q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예약접종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https://ncvr.kdca.go.kr 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작성 방법
1 방문
2 상담·작성
3 등록
작성가능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및 작성가능
공단 지사 검색
전국 등록기관 검색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생활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금융위원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겨울방학
주말 체험
프로그램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양양군
토제인면상
덧무늬토기
운영기간 2023. 01. 07.(토) ~ 02. 25.(토)
운영시간 하루 2회 운영 (매주 토요일, 일요일)
• 오전 10:00, 오후 13:00
• 소요시간 : 약30분
참여인원 관람객 누구나 / 1회당 12명 내외
장소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체험료 무료
접수방법 전화접수 (033-670-2547)
이메일 접수 (zzambo0812@korea.kr)

양양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꼭! 변경(갱신)하세요

농업경영체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2020년 갱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2023년도 갱신 필수!!

3년이 경과되기 전 농업경영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 시행 : 2020년 8월 12일)

-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 시** 등록정보 말소
- 등록정보 말소 시 각종 농업인 지원사업(농업인수당, 공익직불금 등)에 제한

* 최종 변경일 확인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읍면동 무인민원 발급기 등)

농업경영체 갱신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요?

- 일반현황(주소, 연락처 등), 농지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신청서 외에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
- 「농지법」 개정 및 시행('22.8.18.)에 따라 **'임차농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전·답·과수원)가 아닌 대지·잡종지·목장용지 등의 토지는 **'농지대장'** 제출

농업경영체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만료 예정일 전까지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신청
- 콜센터(1644-8778), 온라인(http://uni.agrix.go.kr) 신청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